# "'호남 저주 망발' 김정재 의원직 사퇴·사죄하라"

### 광양시의원, 규탄 성명 발표

### "국민 생명 경시 몰지각 발언

### 재난 앞 영남·호남 따로 없어"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호남 저주 망발'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호남 저주 망발'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2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 표결 과정 중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쏟아냈다"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난 앞에 영남과 호남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라며 "재난 피해 지원 법안과 같이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한 망언은 국민 통합을 해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피해를 정치적 계산에 악용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망언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준엄한 심판과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와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와 국민 안전은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통합과 지역 간 화합을 해치는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광양=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양주백석고 입학생 감소 불구 학급당 정원↑

## 학생들 불이익 없도록 학급 감축사태 막아야"

### 이영주 경기도의원 간담회

### 과밀지역 고교 신설 촉구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양주1)이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시 지역내 고등학교 설립과 학급 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북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 의원은 ▲과밀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학급정원 산정 방식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의원은 "양주 서부권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양주백석고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입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정원이 오히려 증원된 상황"이라면서, "결국 정원 미달에 따른 학급 감축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백석고의 학급 정원은 현실에 맞게 최소화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학급 감축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동부권 과밀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학급정원 과밀지역에는 고등학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학교설립과장은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정책 논의

### 은평구의회 '나란히 연구모임'

###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송영창) 의원연구단체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란히 연구모임'이 최근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5개월간의 연구성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내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지역 현황조사를 비롯해 사례분석·심층인터뷰·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연구모임은 최종보고를 통해 발달장애인 수첩 도입, 미등록·미이용자 발굴 체계 구축, 통합상담사 배치, 온라인 간급지원망 마련, 부모 사망 대비 지원, 주간활동·직업재활 확충, 실종 예방, 보험 지원 제도, 가족휴식 서비스, 관련 조례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나란히 연구모임'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은평구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송파구의회, 日 분쿄구의회 대표단과 교류 확대·상호 협력 소통

### 환영간담회서 환담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가 최근 구의회 3층 제1회의실에서 송파구의회를 방문한 일본 분쿄구의회 대표단을 맞이해 환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분쿄구의회 이치무라 야스토시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참석을 계기로 송파구의회를 방문하게 됐다.

이날 환영 간담회는 양측 대표단 소개 및 인사, 환영사와 답사, 환담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혜숙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 이렇게 분쿄구의회 대표단을 다시 뵙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 의회가 의정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호 협력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분쿄구의회 이치무라 야스토시 의장도 답사를 통해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이혜숙 의장을 비롯해 김성호 운영위원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일본 분쿄구의회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추석 맞아 제빵 나눔봉사

### 서초구의회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최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동봉사관에서 제빵 나눔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과명장과 함께하는 제빵 나눔 행사로, 고선재 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서초지구협의회 회원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박준서 명장으로부터 위생 및 제빵 교육을 받은 뒤 재료 준비와 손질, 굽기와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완성된 빵 320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을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고선재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사랑 나눔 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수원시의회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 기대"

### 7개국 8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과 환송오찬

경기 수원시의회가 최근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맞아 수원을 방문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청해 화합과 우호 증진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환송오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과 7개국 8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기아춤과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환송사와 답사, 기념품 전달 등 뜻깊은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송사에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과 함께하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시의회에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번 만남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원에서의 시간이 따뜻한 추억으로 오래 기억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수원을 방문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은 일본 아사히카와·후루이, 캄보디아 시엠립, 프랑스 뚜르, 독일 프라이부르크, 미국 피닉스, 중국 주하이, 베트남 하이퐁 등 7개국 8개 도시에서 참석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동작구특별회계·기금 운용 문제점 분석

### 구의회도 최종보고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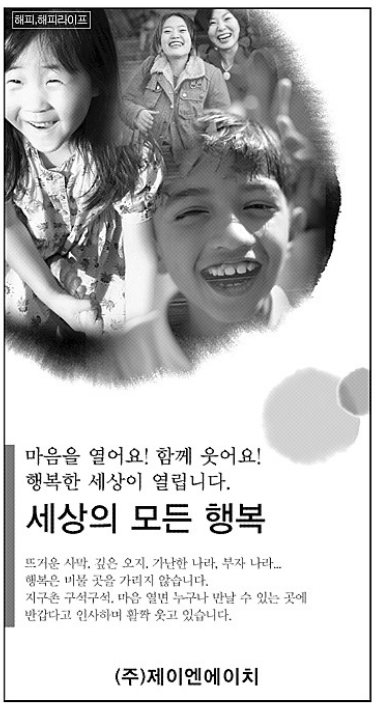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이 최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동작구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동작구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 연구진이 참석해 동작구 특별회계(3개) 및 기금(19개 계정)의 운용상 문제점과 정비 대상 기금을 분석했다. 또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으로 ▲수지균형의 원칙 견지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지출 효율화 ▲기금운용 성과 제고 및 기금 수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5-1341호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미래혁신관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종로구 명륜3가 53-2번지 일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내 혁신성장구역)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미래혁신관 신축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2번지 일대
다. 시 행 자 : 성균관대학교
라.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축물 : 미래혁신관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1월 4일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해화동주민센터
※ 전자공람 : 종로구청 홈페이지(https://www.jongno.go.kr)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eia.seoul.go.kr)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skku.edu)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및 요약서(공람장소 등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10:00
나. 장 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5층 글로벌 R&E라운지
다. 개최대상 :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라. 내 용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에 대한 내용설명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만료일2025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작성하여(별지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종로구청 건축과, 해화동주민센터 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축과전화: 02-2148-2783로 문의 바랍니다.